야호! 멋진인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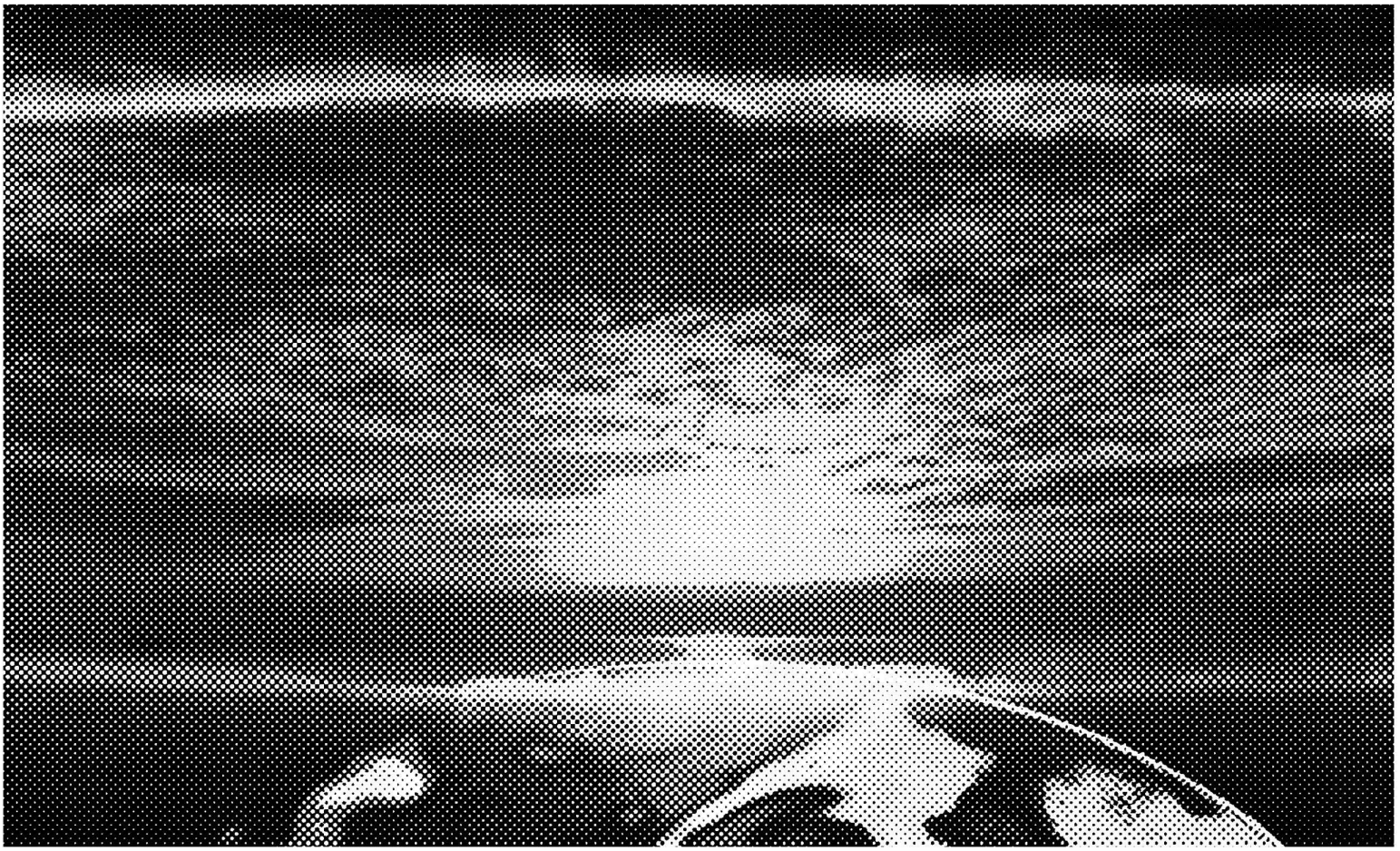
♫ 이조키의 추천 러브송
鄧麗君(등려군) - 我只在乎你(아지재호니) _ 나에게는 오직 당신뿐

러브송 Love Song

- 목차

스페이스 오페라 - 나와 그녀의 이야기
이조키의 사랑 노래 / 멋진인생24시
고재현의 베스트워스트 / 머나먼 우주로부터의 메세지 / 야호! 문예부 / 숨은그림찾기 / 그놈은 멋있었다? / 체험수기
후루꾸 상담실/ 옛날말씀 / 메아리코너

스페이스 오페라 | 나와 그녀의 이야기



때는 우주 세기 C-138 차원의 마더 쉽 콜로니 '지구'에서 있었던 나와 그녀의 이야기다.

#1
그녀는 다정한 사람이었다.
사소한 얘기에도 눈을 마주치며 대답해 주었고 만나고 헤어져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항상 먼저 연락해 잘 들어가라고 안부해주었다.
그녀는 따듯한 사람이었다.
그녀의 곁에 있으면 햇살의 온기가 느껴졌다. 좋은 햇살에 말려 어머니가 깔아주시던 이불 같은 그리움이 그녀에게서 느껴졌다.
어느 날 그녀를 만나고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난 잠들 수 없었다. 한낮에 눈 부신 햇살 속에서 조용히 풀밭을 바라보던 그녀의 잔상이 내 눈 안에 남아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쓰고 아무리 자려고 발버둥 쳐 봤지만 나는 눈이 부셔서 잠들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나는 그녀를 멀리했다. 그녀에게서 도망친 후 한동안 그녀에게서 메시지가 왔지만 나는 답을 하지 않았다. 차츰 그녀로부터의 연락도 끊어졌다.

#2
시간이 지나 그녀가 달로 여행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리곤 달의 언덕에서 만난 달의 남자와 사랑에 빠져 연인이 되어 보랏빛 별로 날아갔다고. 나는 한동안 잊고 있었던 인별무게 SNS의 아이디를 찾아내 로그인을 했다. 다행히 그녀는 나를 차단하지 않았고 친구 사이는 유지되고 있었다. 그녀의 SNS 계정에 올라온 달의 언덕에서 그와 찍은 그녀의 사진을 보며 난 낯섦을 느꼈다. 사랑에 빠진 그녀의 얼굴은 이런 모습이라는 걸 그때 처음 보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여행을 이어갔고 달의 남자와 헤어져 이번에는 불의 별로 여행을 떠났다. 그녀는 백일 밤 동안 꺼지지 않는 불의 별의 열기에 취해 새로운 연인을 만났다. 나는 또다시 낯선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머리로는 팔로우를 끊어야지 생각해도 그녀의 업데이트되는 새로운 일상에 대한 호기심을 이기지 못했다. 나는 그녀의 SNS를 계속 팔로우 하며 보게 되었고 다행과 불행의 경계에서 그녀의 일상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었다.
많은 시간이 지나 SNS에서 그녀가 여행을 마치고 콜로니 '지구'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보았다. 오랜만에 그녀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조금 놀랐지만 반갑게 답해 주었고 우리는 시간을 정해 만나기로 했다.

#3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해 그녀를 기다렸다. 멀리서 다가오는 그녀를 보았을 때 그녀는 여전히 눈이 부셨다.
오랜만에 만난 그녀는 여전히 다정했고 따뜻했다. 잊고 있던 마음속 깊은 곳에서의 따뜻한 감정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그리고 그녀는 내게 뜻밖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내가 그녀에게서 사라진 후로 그녀는 많이 괴로워했노라고.
세상의 모든 별을 여행하고 와서 이제야 나에게 편하게 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해주었다. 나를 많이 사랑했었노라고. 어려서 겁이 너무 많아 행여 사랑이 받아지지 않아 나를 잃을까 봐 겁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항상 자신의 표정을 웃는 얼굴 뒤에 숨기고 또 숨겼었다고.
머리를 정통으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순간 멍하니 나는 말을 이을 수 없었다.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고 내 안에선 그동안의 긴 세월 동안 나 스스로를 속이며 억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하려 하고 있었다.

#4
하지만 가장 행복한 순간은 가장 불행한 순간 앞에 있었다.
그때!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콜로니의 천장을 뚫고 거대한 우주선이 내려와 그녀를 향해 강렬한 빛을 뿜어냈다. 안녕이라는 인사말도 할 수 없을 만큼 찰나의 순간에 그녀는 그 빛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리곤 **우주선으로부터 메시지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5
"오랜만이다, 이조키 더 플레임 파이터! 너를 향한 복수의 칼날을 갈아오길 수년, 드디어 너에게 복수의 기회가 왔구나! 여자를 찾고 싶다면 나의 665명의 부하들과 나 부다 킬라까지 666명을 꺾고 여자를 찾아가 보거라! 이 모두를 꺾으면 순순히 여자를 내어주겠다! 꺾지 못한다면 여자 또한 패배자가 되어 죽어가는 너의 저승길 길동무로 삼아주마!
"파하하하하하하하항"

#6
그렇게 도전을 선포하고 기괴한 웃음소리를 날리며 거대한 우주선은 광활한 우주로 사라져버렸다.
몇 년 전 나에게서 패배해 챔피언 벨트를 잃고 잠적했던 전 우주 레슬링 연방(Whole Universe Wrestling Federation, 약자로 WUWF) 전 챔피언 부다 킬라!
이제껏 나의 SNS 계정을 몰래 해킹해 오고 있었던 것인가?!
나의 가장 행복한 순간을 노려 나의 행복을 앗아가다니..!!
그래, 너의 도전을 받아주겠다 부다 킬라여!

666명의 악인을 꺾고 그녀를 구출해 패배한 그들의 시체의 산 위에서 그녀에게 고백할 것이다!

★ ★

'오랫동안 당신을 그리워했어요.
시간을 지나 우리가 서로 같은 곳에 마주하고 있네요.
세상의 끝까지 당신과 함께 나란히 걸어가 줄게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조키 더 플레임 파이터의 사랑과 복수를 향한 서막이 시작되었다.

★ ★



그녀는

그녀는 달의 언덕에서
달의 남자와 사랑에 빠졌지

그와 함께 보랏빛 별로 날아가
달을 보며 사랑을 나눴지

처음 보는 그녀의 얼굴을 보았지

그녀는 불의 별을 여행 중에
새로운 연인을 만났네

백일 밤 동안 꺼지지 않는 불에
그녀는 그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렸네

처음 보는 그녀의 얼굴을 보았지

*오랫동안 당신을 기다려 왔어요
시간을 지나 우리가 서로 같은 곳에서
마주하고 있네요
세상의 끝까지 당신과 함께
나란히 걸어가 줄게요

시간이 지나 달과 불의 남자는
그녀의 곁을 모두 떠나갔다네

이제 석양 앞에 그녀와 둘이 앉아서
세상의 끝을 물끄러미 보고 있네

처음 보는 그녀의 얼굴을 보았지

*오랫동안 당신을 그리워했어요
시간을 지나 우리가 서로 같은 곳에서
마주하고 있네요
세상의 끝까지 당신과 함께
나란히 걸어가 줄게요

이조키 작사, 이조키 작곡 사랑 노래

어색해도 조금만 더

우연히 다시 만난 그녀에게 인사를 건네볼까
woo hoo hoo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날씨가 참 맑네요
woo hoo hoo

*할 말도 없지만 조금만 더 당신과 얘기하고 싶어요
어색해도 조금 더 당신과 머물고 있고 싶어요

어딜 가고 있었나요 약속시간에 늦은 건 아닌가요?
woo hoo hoo
만나서 반가웠어요 다음에 시간 되면 꼭 한번 만나요
woo hoo hoo

*할 말도 없지만 조금만 더 당신과 얘기하고 싶어요
어색해도 조금 더 당신과 머물고 있고 싶어요

*할 말도 없지만 조금만 더 당신과 얘기하고 싶어요
어색해도 지금 이 순간에 우린 함께 있는 걸요

마이 러브

A little more, Even if it's awkward

Let's say hello to her by chance.
woo hoo hoo
It's been a long time. How have you been?
what a beautiful day.
woo hoo hoo

I'd like to talk to you a little bit more.
Even if it's awkward, I'd like to stay
with you a little longer.

Where were you going? Aren't you late
for your appointment?
woo hoo hoo
Nice to meet you. If you have time next time,
we will see each other.
woo hoo hoo

I'd like to talk to you a little bit more.
Even if it's awkward, I'd like to stay
with you a little longer.

I'd like to talk to you a little bit more.
Even if it's awkward, but we're together right now.

My love 번역 : 이조키

러브 발라드

우리 요즘 자주 만나게 되네요
이러다 당신에게 정들겠어요
오늘따라 계속 당신과 눈이
마주치네요

술에 취했나 봐요
당신 옆자리에 앉아 쉬어도 될까요

내 농담에 당신이 웃어주네요
시시한 얘기지만 긴장이 돼요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버려요
아직 아쉬운데

밤이 늦었나 봐요
우리 서두르지 말고 이대로 더 있어요

나와 함께

그대로 날아가지 말아줘 이대로 같이 조금 더 걷자
내가 너를 잘 몰랐었나 봐 오늘은 왠지 다르게 보여
아아아 아아아아아
*오 그대여 날 붙잡아줘
해가 질 때까지 함께 걷고 싶어
너와 함께

차가운 밤바람 때문인지 잡은 손이 더 따듯하게
느껴지는걸 너도 같이 느끼고 있는 걸까? 내 맘 같이
아아아 아아아아아
*오 그대여 날 붙잡아줘
해가 질 때까지 함께 걷고 싶어
너와 함께

*오 그대여 날 붙잡아줘
해가 질 때까지 함께 걷고 싶어
나와 함께 에에에에에에 있어 줘

the 1234-dah!(더 원 투 쓰리 포 다아!)는

C-137 차원(애니메이션 릭 앤 모티의 다중우주적 세계관의 차원 코드로, C-137은 릭 앤 모티의 주인공이 살아가는 차원인 지금 우리가 사는 현재의 차원의 코드를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현재, 코로나19가 창궐한 현재를 뜻한다. C-137 차원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따지는 건 나무위키에서 따져주길 바란다.)의 밴드이다.
기타 보컬인 이조키가 2차 성징 이후 급격하게 자라난 턱과 큰 키 때문에 일본의 전설적인 레슬러 안토니오 이노키(만화 괴짜 가족의 국회의원 캐릭터가 이 이노키를 모티브로 만들었다. 한국에선 키 크고 못생긴 개그 캐릭터로 인식된다.)를 닮은 외모로 성장하게 되었다.
자신의 외모를 비관하며 살다가 어느 술자리에서 친구들과 나눈 대화 중에 '이조키는 안토니오 이노키처럼 생겼으니까 프로레슬링 콘셉트로 밴드를 만들어보는 게 어때?'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해서 본명을 버리고 이조키(일러스트 작가로 활동할 때 쓰던 활동명 IZO에 안토니오 이노키의 INOKI를 합성하여 만든 이름)로 개명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게러지 락과 펑크 스타일의 음악을 연주하는 the 1234-dah!를 만들었다. 밴드명은 안토니오 이노키의 승리 세리머니인 1-2-3-다아!를 오마주 하여 지은 이름이다.
기타 보컬을 하면서 발로는 드럼을 치는 원 맨 밴드를 구상했으나 연주가 힘도 들고 보기에도 안쓰러워서 원 맨 밴드는 포기! 베이스 기타에 호구 마스크와 드럼의 홍구를 영입해서 활동해오다 홍구는 음악적 견해 차이로 탈퇴! 그 후 그라인드 코어 밴드 고로쇠의 하루가 공연의 세션 드럼으로 참가했다가 전격 멤버로 영입돼서 극악 하루로 이름을 바꾸고 지금의 라인업으로 활동하고 있다.
게러지 락+펑크 스타일의 음악으로 안토니오 이노키를 주제로 한 프로레슬링 이야기와 사랑 없이는 한 시도 못 사는 프로짝사랑꾼 이조키의 영향으로 짝사랑 이야기를 가사로 담아내고 있다.



멋진인생 24시

<지난 이야기>
하다가쓰 나갈레로는 갖은 인종차별의 시련과 고통을 받았지만 자유의 나라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인천공항에 입국하게 되는데…

하다가쓰 나갈레로의 합류

하다가쓰는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했다. 수많은 자유를 꿈꾸며, 표현하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가 크게 간과한 것이 있었으니, 한국말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구글에서 외국인이 많다던 이태원으로 무작정 가게 되었다. 흔히 당하는 외국인 사기를 당하며 반지하 단칸방을 500에 120으로 살게 되었고 그나마 모국어를 할 수 있었던 재외 동포 클럽에 가서 골반을 흔드는 게 그의 낙이었다.
때는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비 오는 날 이태원의 어느 클럽이었다.

"jaengban jjajang-eul sik yoon eunde ilban jjajang-i was sne!"
분명 하다가쓰는 자신이 이태원에 있다는 걸, 한국 밴드의 공연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치만 그의 눈에서 흐르는 건 땀이 아닌 눈물이었다. 어느새인가 그들의 노래를 같이 부르기 시작했다.
"jaengban jjajang-eul sik yoon eunde ilban jjajang-i was sne!"

브라질에는 속담이 있다.
'카니발이 끝나기 전에는 새해가 시작되지 않는다.'

그들이 외치던 한국말이 브라질말로는 그 속담이었던 것이다.
공연이 끝난 뒤 하다가쓰는 그 밴드에게 찾아갔다. 퍼커션 멤버가 필요하지 않냐고 물어보았다.
하다가쓰의 설득과 눈물에 그 밴드는 하다가쓰를 영입하기에 이르렀고, 그 밴드는 박상권 선생이 이끄는 멋진인생이었다.
하지만 하다가쓰는 몰랐다.
그 속담이 한국어로는 **'쟁반 짜장을 시켰는데 일반 짜장이 왔네'**란 것을…



사진설명 (위) 하다가쓰 나갈레로 (아래) '사랑이란 이런걸까'를 열창 중인 멋진인생

박상권 선생과 키타키타키타 GOGOGO



자, 이제 다음으로 연주해야 할 코드는 A코드이다.
A코드는 한 지판에 무려 세 손가락이 수직과 수평을 이루어 옹기종기 모여있는 아주 멋진 코드이다. 간혹 한 손가락으로 세 개의 줄을 모두 잡는 방법도 있지만 한 줄 한 줄 하나의 손가락으로 잡아주는 것이 좀 더 섬세하게 줄의 울림을 느낄 수 있다. 이때 오른손도 모든 줄을 동시에 울려준다는 느낌으로 날렵하게 아래에서 위로 연주해주어야 올바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자, 그럼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하자!



Jaengban jjajang-eul
sik yoon eunde ilban jjajang-i was sne

쟁반 짜장을 시켰는데 일반 짜장이 왔네

고재현의 베스트 워스트


날카로운 비디오 쟈키, 고재현

베스트 〈판타스틱 미스터 폭스〉

웨스 앤더슨의 어린이 영화(?). 가상세계에만 있는 쉽고 재밌는 권선징악 스토리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다. 웨스 앤더슨 특유의 색감과 갖가지 조형물들의 재료들 촉감이 눈을 즐겁게 하고, 데스플라의 음악들이 엄청나다. 영화가 끝나고 바로 데스플라의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다.

워스트 〈셰이프 오브 뮤직 : 알렉상드르 데스플라〉

가장 뛰어난 영화음악가 중 한 명인 알렉상드르 데스플라의 다큐멘터리. 데스플라는 해리포터, 셰이프 오브 워터, 벤자민 버튼, 아르고 등 수많은 명화의 음악을 담당했다. 음악이 너무 좋아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너무 설명이 많은 느낌이다. 음악을 들려줄 땐 좀 더 들려줬으면 했다. 음악이 듣고 싶으면 찾아 들으면 되지 않냐고 할 텐데, 직접 봐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할 거다.



머나먼 우주로부터의 메세지

바야흐로 때는 2021년 뜨거웠던 여름은 지나 어느새 밤하늘엔 살찐 페가수스자리가 빛나고 있는 천고마비의 계절이 되었다. 이 계절에 울려 퍼지는 사랑의 노래들을 보면 먼 옛날 빅뱅 이후 계속 팽창해가며 서로의 거리가 멀어지는 우주의 감정을 인간 자신도 모르게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아주 인간적이고 동물적인 가사와 텐션으로다가 이끌림과 이별 그리고 그리움에 애잔한 사랑을 노래하며, 방대한 우주에서 먼지처럼 작은 인간도 다른 것들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노래하는 러브송들은 가을 하늘의 별빛들처럼 반짝거리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태초에 가까웠던 우린 멀어지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미 지나간 시간의 별빛들을 보는 일 밖에 할 수 없기에 생으로 리듬을 만들어 반복되는 리프 속에서 우리는 사랑의 감정의 기억을 추억하거나 상상하며 춤을 춘다. 그것은 푸른 하늘 위에 흩뿌려져 움직이는 구름처럼 또는 일렁거리며 밤하늘 별빛들처럼 춤을 추며 반짝인다. 높아가는 가을 하늘 아래 구슬픈 러브송을 들어보자!

구슬픈 러브송 QR코드

글쓴이 / 이주현 <고양시, 44세>

야호! 문예부

@ssaguryeo_

이조키의 추천 리브송
기린-UTKfeat 미노이
어떡해 나도 니가 좋은데 내마음 들켜버리면..♡

내가 노을을 사랑하는 이유

김민선 (33. 헤드헌터)


<한강 방화대교 노을 _ 사진 okjam >

어떤 날에 우리는 노을을 만난다. 낮엔 눈부시게 하얀 색을 띄던 태양이 지평선에 가까워질수록 이글거리는 빨간 색을 띄며 그 존재감을 과시한다. 푸르던 하늘에 붉고 노란 빛이 나타나고 그 빛이 점점 확장되어 교차한다. 태양이 그 타오르던 불꽃을 감추며 지평선 너머로 넘어가도 따뜻한 색채의 빛들은 여전히 태양의 흔적을 따라 일렁이고, 곧이어 보랏빛, 분홍빛이 나타나 구름을 비추며 피어 오른다. 이렇게 신비로운 색채로 가득한 하늘을 볼 때에 나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 떠올리곤 한다. 아름다움을 정의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미학자들이 얼마나 많은 해석을 내놓았는지 모두 헤아리진 못하겠지만, 아마 아름다운 것들은 노을을 닮지 않았을까. 이 광경을 보며 경이와 숭고를 느끼지 않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 아닐까.

자칫 감상에 젖었다가 정신을 차려보면 노을은 이미 절정의 화려함을 지나 색을 바래가고 있다. 따뜻한 색이 서서히 그 온도를 잃어가고, 푸르스름한 빛이 점점 하늘을 메워가며 쪽빛을 지나 어둠을 향해갈 때면, 낮에는 눈에 띄지 않던 달과 별도 눈에 띄기 시작한다. 아찔하고 또 찬란한 노을 빛의 레이브는 기껏해야 하루에 20분 정도만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게릴라성 파티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하지만 해가 매일 진다고 해서 항상 대단한 노을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비가 오거나 서쪽 지평선 근처에 구름이 가득하다면, 하늘은 새로운 색의 출현없이 그냥 서서히 어두워지기도 한다. 비 뿐 아니라 습도와 대기질에 따라서도 노을의 유무와 정도는 달라진다.

노을은 이렇게 불확실하고 희귀하며, 시시각각 변한다. 그리고 어떠한 찬란함에도 미련을 두지 않은 채 사라진다. 모든 조건들이 맞아 떨어져 빚어낸 절묘한 광경을 이렇게 쉽게 지워버린다는 점에서 나는 종종 허무를 느낀다. 하지만 노을은 회귀한다. 내일 이 시간 즈음 또 새로운 절정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나는 생에 대한 기대를 품을 수 있다. 설령 내일 비가 오거나 또 어떤 조건이 맞지 않아 기다리던 장면을 만나지 못 한다해도, 내가 만날 일몰은 무수하다. 그래서 지구가 돌고 있는 이상 나는 덤덤하게 오늘을 보내줄 수 있다.

(+) 일몰시간의 선물이 하늘에 비친 노을에서 그치는 것은 아니다. 낮아지는 해를 아쉬워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면, 내가 바라보던 노을의 빛깔이 세상을 비추고 있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다. 푸른 빛이 흩어지고 파장이 긴 붉은 빛만이 남아 비추는 세상은 또 낯선 인상을 준다. 내가 알고 있다고 믿어왔던 것들이 노을 빛 아래에 전혀 다른 신비한 색을 드러낼 때, 나는 일상에서 신비를 발견하게 된다.

(++) 또한 이 따뜻한 색채의 빛은, 태양열로 인해 물리적으로도 따뜻하여 따뜻한 마음까지 불러일으킨다.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노을을 보러가 잔뜩 따뜻해진 눈빛으로 서로의 신비를 탐구해보는 것은 어떨까?

쪼다일기 제 2화

쪼다 일기 작가 쪼작

잠깐? 정지! 스톱! 스톱!!
그래서 쪼다는 누구인가? 쪼다에 대해서는 쪼다일기의 전지적 작가 시점을 가진 작가 본인조차도 쪼다에 대해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쪼다를 보는 전지적인 입장과는 별개로 자기 자신조차 자신에 대한 오리무중으로 가득 차 있는 작가 본인의 상황도 존재하는 것이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는 유행가 가사처럼 알아봤자 거기서 거기인, 게다가 작가적 통찰을 선보인 적 없는 공신력이 전무한 무명 작가의 겸손함을 이유로 작가 본인조차 쪼다를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그저 쪼다의 행보를 지켜 보고 지난 행동을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 결국 그 예측이 빗나가는 쪼다의 순간들을 기록하는 것이 작가의 입장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확인된 쪼다에 대한 단서를 나열해 본다. 호기심에 비해 호기로움 적다. 아는 것은 많은데 경우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고루한 언어 구사 능력을 빼놓을 수 없다. 혹자는 쪼다의 언어 습관, 어딘가 어색한 몸짓과 시선을 근거로 쪼다가 남파 간첩이 아닌지 의심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작가도 그 점을 의심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가 언젠가 편의점에서 말표 구두약을 사서 빵에 발라 먹으려는 것을 보고 기겁한 적이 있긴 하다. 간첩 아니면 관종이겠거니 했는데 한입 먹더닌 퉤퉤 뱉어 버리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때 이 인간이 간첩도 관종도 아닌 쪼다라는 것 하나만큼은 확신할 수 있었다. 다음 화에 계속



숨은 그림찾기: 버섯, 곰방대, 사탕, 압정

'그놈은 멋있었다?'



안녕하세요!
코너 속의 코너 '그놈은 멋있었다?' 의 리포터 이주현입니다.
오늘은 파블로프의 오도함 씨를 만나보게 됐는데요.

이) 이반 파블로프는 1904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였는데요, 요즘 오도함 씨의 생리현상에는 어떤 현상이 있나요?
오) 아침에 화장실에 오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연락하지 마라...
이) 초등학교 때 반사라는 가드불능기술 중에 무지개 반사에 대한 평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Ex. 반사보다 더 높은 반사의 존재는 무용이다)
오) 세상엔 다양한 반사기술이 있겠습니다. 서른다섯 즈음에 생각해보니 반사보다 중요한 것은 반사각 조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오도함 씨가 생각하는 예술가의 조건은?
오) 조건이라뇨! 우리 모두 누구나 예술가일 수 있답니다. 물론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무도 알 수 없답니다.
이) 퀴즈입니다. 음과 음의 사이를 음정이라고 하는데요. 도와 솔의 음정은!?
오) 오도;
이) 6주 뒤의 오도함 씨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 오서방 힘내고 과거의 도함이를 너무 미워하지 말으렴

이상 리포터 이주현이었습니다. 야호!



<오도함>



<이반 파블로프>

음정 세는 법

음정을 세는 데 있어 가장 먼저 할 일이 단순히 음정의 숫자를 결정하는 것인데 이때는 샵과 플랫은 일단 무시해야 합니다. 음정을 세는 요령은 아래음 자신부터 시작하여 위의 음까지 몇 단계인지를 셉니다.예를 들어 도와 솔 사이의 음정이라면, 도(하나), 레(둘), 미(셋), 파(넷), 솔(다섯) 이렇게 해서 5도입니다.

후루꾸 상담실

저는 낮에는 평범한 직장을 다니고 퇴근 후에는 고양이를 좋아해 동물보호센터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길고양이 밥을 주기도 하는 평범한 직장인인데요. 센터 봉사활동을 갔다가 만난 동갑의 예쁜 여자친구를 2019년 초부터 만나게 되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집 근처에서 돌봐주던 길고양이들도 제가 대신 밥을 챙겨주기도 하고 가끔 중성화 수술이 필요한 고양이와 치료가 필요한 고양이를 제가 대신 구조해서 병원에 데려가기도 하고 특별히 잘난 것은 없지만 고양이들 덕분에 남자친구 역할을 조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자친구의 고양이가 복막염으로 고양이 별로 떠나게 되어 힘들어하고 있어요. 여자친구의 반려 고양이 크림이를 닮은 다른 치즈테비 냥이를 보고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는 여자친구 옆에서 어깨를 토닥여 주는 것 외에 좀 더 힘이 될 수 있는 무엇이 없을까 고민이 되는 요즘입니다. 반려가족을 떠나보내고 위로가 될 수 있는 선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여자친구가 고양이 별로 떠난 크림이에 대한 슬픔을 극복할 수 있을 이벤트가 무엇이 있을까 고민 중인데 락 음악과 인디 뮤직을 좋아하는 여자친구를 위해 우쿨렐레를 배워 함께 여행을 떠나 멋진 곳에서 노래를 불러주고 싶은데 너무 유치할까요? <윤정호 . 30세. 부천>



상담 환영

해결사 이기철이
말끔히 해결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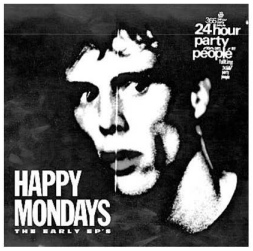
제보처: 인스타그램
@used__boy

해결사 이기철
슬픈 소식이네요. 주제넘은 답변이 될 수도 있지만, 여자친구분도 분명히 현실로 돌아오려 많은 애를 쓰고 있을 거 같습니다. 그 모습을 당분간은 응원해주시며 기다려주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요? 좋은 공간 좋은 음악에서 우쿨렐레 연주해주시려는 생각도 너무 멋있으시네요.
쉬운 곡 추천해드립니다. <코코어 - 유체이탈>



밤마다 맥주가 너무 마시고 싶은데 어쩌죠우,,? < 문슬기. 31세. 광진구>

해결사 이기철
저런,,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Happy Mondays 24 hour party people>



Happy Mondays

영국 맨체스터 출신의 매드체스터 밴드 1980년 결성되었다. 매드체스터, 브릿팝의 전설인 스톤 로지스, 제임스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전설적인 밴드

전 우주 레슬링 연방(WUWF) 챔피언 이조키와의 인터뷰

<C-138 차원의 야호!멋진인생 제697579호 인터뷰 중 발췌>

Q_당신의 전적이 화려하다. 1,943,220전 1,943,220전 전승의 레슬러이다. 이게 사실인가?
A_그러하다. 전 우주적으로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열을 가리기 위해선 하루에도 수십 명과 맞붙어 싸워야 했다.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올 수 있었던 거다.
-중략-
Q_채널 1969홀에서 치뤄진 '부다 킬라와 665명의 악인 대 이조키'전은 WUWF 사상 최고의 이벤트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665명의 악인을 꺾고 666명 째인 부다 킬라를 꺾은 순간을 말해줄 수 있는가? 그리고 666명의 악인을 꺾고 그녀를 구출했는데 그녀는 지금 어떻게 지내는가?
A_내 생애 최고의 승리였다. 패배한 665명의 악인을 꺾고 그들의 시체 산 위에서 부다 킬라를 맞닥뜨렸을 때 이미 난 만신창이였지. 양쪽 팔뼈가 모두 부서진 상태였으니까. 하지만 간신히 정신력으로 팔근육에 힘을 강하게 줘 뼈를 지탱해 버틸 수 있었고 슬리퍼 홀드로 부다 킬라를 제압할 수 있었다. 그 후로 병원에 입원해서 한동안 깁스를 해야 했다, 하하 그녀와는... 그 후로 오래가지 못했다. 첫사랑의 딜레마랄까, 지금은 여행작가와 결혼해 잘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Q_지인을 통해 들은 건가?
A_아니다 SNS를 통해 알게 되었다. 아직 그녀를 팔로우하고 있으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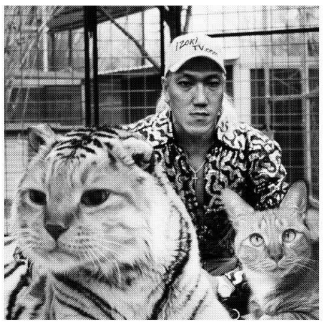


♫ 이조키의 추천 러브송 / 미노이-DOOL / 너하고 나하고 딱 DOOL ♡

체험수기

★조키오빠를 생각하며,,, ★

-망원동 샤이닝쓰나미



치즈 고양이 두 마리를 포동포동 돼냥이화 하신 냥덕이자 존나 빠르고 시끄러운 음악의 펑크맨, 멋진 핸드포크타투와 둘째 가라면 서러울 홍대 공연 포스터 디자인계의 큰 별이자 남다른 휏숀센스의 소유자 이조키. 그를 떠올리면 덧붙일 수식어와 형용사가 많다. 내가 어느덧 그와 친우의 연을 맺은 지도 약 5년이 되어간다. 그와 밖에서 함께 걷노라면 자랑스러움과 동시에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다. 아마도 Sex가 새겨진 미니백과 각선미를 자랑하는 핫팬츠 탓이리라. 개성만점의 금사빠 이조키씨에 관한 글을 게재하려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까? 아득해진다. 그의 사랑 이야기를 간략히 되짚어보고자 한다.

♡조키씨의 사랑♡

이조키의 사랑? 숙연해지는 단어이다. 1234-DAH의 가사에서 느껴지는 그의 사랑은..

할 말도 없지만 조금만 더 당신과 얘기하고 싶어요 어색해도 조금 더 당신과 머물고 있고 싶어요 – 어색해도 조금만 더 中

- 그는 한 번도 짝사랑녀에게 대시 또는 그 이상의 무언가를 해낸 적이 없는 쑥맥 of 쑥맥이다. 저 가사는 망상에 가깝다. 길게 뻗은 턱으로 사랑을 쟁취할 것 같지만 그 턱조차 짝사랑하는 여인 앞에서는 한낱 凡人의 턱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용기를 내 말을 해볼게 이 노래가 끝나기 전에 마주친 눈을 피하지 않고 단숨에 얘길 해줄게 *놀리지 말고 들어줘 너를 사랑해 예예예 – 해피뉴이어 입니까? 中

- 그가 용기를 냈더라면, 나는 홍대 걷고 싶은 거리를 셋이 아닌 넷이 걸었을 지도 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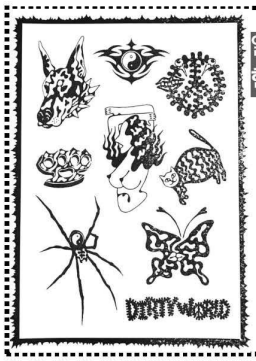
당신은 따뜻한 사람 사소한 얘기에도 눈을 마주치며 대답해 주네 – 다정한 사람 中

- 알고 보니 모두에게 따뜻한 그녀였다고 한다.

짝사랑 유경험자 중 이조키가 담아낸 가사를 보고 눈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가 있을까? 그의 가사들은 실존하지 않는 허구를 토대로 이루어진, 선험이 부재한 거짓말임과 동시에 한편의 문학이다. 이쯤 되면, 원투쓰리뽀다의 지속을 위해선 조키씨의 끝없는 연애 실패가 필요충분조건처럼 여겨지나, 한편으로는 기적이 일어나 대중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무대에 서는 모습을 희망해보게 되기도 한다.

♨ 조키씨에게 하고 싶은 말♨

조키씨!! 프링글스는 이제 그만 먹도록 해.. 그거 알아? 조키씨가 프링글스를 사 올때면 늘 분노가차오르곤 했어.. 프링글스는 뚜껑이 플라스틱이고 중간이 종이이며 바닥이 알루미늄이란 말이야~~ 분리수거 할 때 제일 빡치는 과자라구,, 환경보호를 위해 프링글스를 자제해주길 바라며, 스윙칩이나 포카칩을 먹길 바라. 일도 사랑도 파이팅!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알싸한 터치로 손맛이 매운
핸드포크타투 맛집 !!!

더티월드타투

네오 트라이벌 작업도 합니다

인스타그램
@dirtyworld_tattoo
dm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녹음실 타디스의 마이킹 핵심 꿀팁 강좌

음향기사 : 류호건

1. 보컬녹음

일반적으로 보컬녹음에 어울리는 마이크는 컨덴서 마이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꼭 컨덴서만으로 녹음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이클 잭슨은 한 앨범에서는 SM7이라는 마이크를, 그리고 U2의 보컬 보노도 SM58 같은 매우 저렴한 다이나믹 마이크를 사용해 녹음을 한 앨범들이 있습니다. 특히 홈 레코딩처럼 제대로 된 룸 어쿠스틱이 되어있지 않은 환경이면 고가의 컨덴서보다 SM58 같은 마이크가 훨씬 더 좋은 소스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단, 58의 단점은 짧은 거리에서의 저음 부스트가 강하다는 점인데 녹음 시에 스탠드에 고정해두고 윗 부분의 쇠로 된 마이크 망을 돌려 빼신 후에 별도의 팝 필터를 따로 사용하여 스탠드에 고정해두고 쓰신다면 컨덴서 못지않은 좋은 소리를 내줄 것입니다.

※ 작은 볼륨의 보컬은 SM58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2. 기타 앰프 마이킹

디지털의 앰프 시뮬레이션이 수없이 많은 시대에도 오히려 앰프의 가격은 올라가고 앰프 마이킹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타 앰프 마이킹은 간단하면서도 마이킹에 따라 소리가 많이 다르게 수음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보통 SM57을 쓰며 앰프 스피커에 직접 대고 수음합니다. 이때 57의 위치가 앰프 스피커의 콘의 정중앙에 위치할수록 고음역대가 거칠게 많이 수음되며 바깥으로 갈수록 반대의 성향으로 바뀝니다. 여기에 더해 콘 중앙의 고음역대가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지거나 카랑카랑한 고음역대를 포기하기 힘들다면, SM57을 콘의 중앙에서 45도 각도로 틀어서 마이킹 해보세요. 거기서부터 조금씩 바깥으로 이동해가며 자신이 내고 싶은 기타의 색을 찾으시면 됩니다. 마이킹으로 자신이 내고 싶은 소리에 최대한 가깝게 녹음한다면 믹싱 단계에 한층 더 나은 결과물을 내줄 것입니다.



※ 앰프와 기타, 프리앰프의 종류에 따라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알아본 마이킹들은 가성비가 매우 좋은 SM57, 58을 이용한 마이킹들이며 데모 정도의 수준에서는 매우 훌륭한 소리를 내주기엔 손색이 없습니다. 하지만 녹음실 타디스에는 빈티지 오리지널 마이크들부터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마이크들과 프리 앰프들이 많이 준비되어있습니다. 녹음실을 찾아주시면 언제든 마이크들과 프리의 소리를 비교 청취 가능하며, 자신의 음악에 가장 맞는 마이크를 선택하실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녹음실 타디스>

옛날말씀

이빨 뒤에 가려진 혀

노자에게 한 제자가 있었다. 그는 한 지방의 관리였는데 큰 가르침을 얻고자 벼슬을 버리고 노자를 찾아갔다. 노자는 제자를 두지 않았으나 청년의 진실함에 결국 제자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노자는 청년을 제자로 받아들여 함께 살면서 단 한 마디도 일러 주는 것이 없었다. 제자는 못내 섭섭하였는데, 그래도 언젠가는 가르침을 주실 거라 믿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자가 마을을 떠나 국경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노자는 홀로 떠나려 하였으므로 청년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다급해진 청년이 노자에게 물었다. "저는 인생에 있어 무엇이 중요한지 배우기 위해 오랜 시간 스승님을 섬겼소.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가르쳐 준 것이 없소. 지금 떠나시면 저는 무명의 어둠 속에 남게 되오. 아무쪼록 떠나시기 전에 한 말씀이라도 좋으니, 인생에 있어 무엇이 큰일인지 가르침을 주실 수 없겠습니까?" 제자는 간절하게 청하였다. 노자는 한참 동안 제자를 바라보고 있다가 아무 말도 없이 입을 크게 벌리는 것이었다. 노자는 늙어서 이는 다 빠지고 이가 있던 자리만 시커멓게 보였다. 노자는 입을 다물고 제자에게 말했다. "알겠느냐?" 제자는 아무것도 모르겠다며 고개를 저었다.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노자는 입을 더 크게 벌리고 보란 듯이 입안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리고 다시 물었다. "알겠느냐?" 제자는 더욱 혼란스러워질 뿐, 여전히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노자는 다시 입을 크게 벌려 보이면서 말했다. "내 입안에 이가 있느냐?" "아니요. 스승님께서는 노인이니 이는 다 빠지고 하나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자 노자는 다시 물었다. "그러면 혀는 있느냐?" "네. 혀는 있습니다." 그러자 노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말없이 달구지를 타고 떠났다. 남은 제자는 멀어져가는 달구지를 보면서 골똘히 생각했다. 스승님이 하고 싶었던 말씀이 이게 아니었을까 하고. "나는 옛날 강철같이 튼튼하고 하얀 이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이의 뒤쪽에는 연체동물 같은 물렁물렁한 혀가 있었다. 그 혀를 가지고 음식물을 뒤섞기도 하고, 호흡을 조절하기도 했다. 밖으로 보이는 것은 돌이라도 부술 것 같은 희고 단단한 이였다. 그러나 보라, 세월과 함께 그 이는 다 빠지고 한 대도 남지 않았다. 이는 다 빠지고 없지만, 이 뒤에 있어 눈에 띄지도 않던 때로는 이에 씹혀서 곤욕을 치르기도 한, 못생긴 혀는 버젓이 남아서 제 몫을 하고 있지 않은가!" 노자가 탄 달구지는 이미 국경을 넘어가 보이지 않았다.

'옮긴이의 말'

그렇습니다. 제자가 찾던 진리는 늘 눈앞에 강인하게 드러나 있는 그러나 끝내 부숴져 버릴 이빨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가려져 오랜 시간 흐물거리며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었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혀 덕분에 노자는 연명할 수 있었던 것이올시다! 아니면, 그저 다 때려치우고 찾아와 정말 중요한 가르침을 묻는 제자에게 맨입에 묻지 말고 뭐라도 먹을 것을 입에 좀 넣고 물어보라는 말씀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쪼록 2021년 계속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치아 관리와 건강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옮긴이 / 박종현 <남가좌동, 40세>



노자 老子
출생 및 사망 미상
출생지 초나라
직업 사상가
분야 도가

트램폴린

향니 (hyangni)

인생은 트램폴린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락 내리락

인생은 트램폴린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락 내리락

난 몇 살까지 사는 걸까
사라지기 적당한 때는 언젤까

난 어디까지 가는 걸까
머무르기 적당한 곳은 어딜까

난 아주 거대한 트램폴린을 타
바닥에 닿을 만큼 깊이 꺼졌다가

다시 어디까지 가는 걸까
머무르기 적당한 곳은 어딜까

떠다니는 잠시 동안에 난
세상 구경이나 할게
가능하면 아주 오랫동안
여기 구경이나 할게

떠다니는 잠시 동안에 난
세상 구경이나 할게
가능하면 아주 오랫동안
여기 구경이나 할게

재밌어 나 내려갈 때도
오르락 내리락
재밌어 나 내려갈 때도
오르락 내리락



[모집공고]

차네마네훗볼크럽

할라다가 말라다가
차네마네 차네마네
찰라다가 볼라다가
차네마네 차네마네
차차 차버려 이걸 봤으면
미루지말고 차버려

차네마네 훗볼크럽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가입문의 @kockabiiilly

냐호!! 멋진인생!



메아리 코너

담배가게 아가씨
링고가 전하는 어쩌다, 여행

_강릉 편

벌써 9월이다. 작년 코로나 이후로 휴가를 못 갔었다가 올해 지난 8월에 어쩌다 보니 강원도로 급히 여행을 떠났다. 볼일 보러 간 거였지만 사람도 없고 산과 바다 맑은 공기들이 있어서 그런지 내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어 버려 급하게 2박 3일 동안 다녀온 곳 중 기억에 남은 장소를 소개한다.

"그리운 바다, 성산포"

여긴 매년 강릉으로 겨울 바다를 보고 혼자 술 먹으러 항상 가는 장소로 이곳을 처음 가는 사람이라면 '애들아 빨리 쳐 앉어~', '밥은 먹고서 술 먹냐~?' 등등 사장님의 반말하는 모습을 보고 불쾌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긴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마치 부모님 집에서 맛있는 집밥과 술을 같이 먹는 정겨운 기분이 드는 곳이다. 항상 가면 배가 터질 지경인데, 이날도 혼자 왔는데 계란 후라이 6알을 부쳐 주셨다... 숙소로 돌아가려고 하면 냉장고에서 또 뭘 싸서 주신다. (제발 그만 주세요...) 또 특이한 점은 메뉴판도 없고 밥 먹었는지 유무에 따라 안주가 다르게 나온다. 그리고 계산 방식이 그 손님의 매너에 따라 가격을 매기신다.
(정말 아이러니함) 나는 안주와 술과 사장님의 유머 등등 이곳이 사라지지 않는 한 계속 갈 거 같다.
다음 이 시간에 계속...

그리운 바다, 성산포

강릉시 임영로 230-2

휴무 : 일요일, 수요일
033-646-0349
(예약 필수)



♫ 이조키의 추천 러브송 / 미노이-너답기기만 / 어허 미노이 칵 미노이하트 ♡

공드린 라구 떡볶이 & 누들

오직 신선한 자연재료만으로
공들여 만드는 라구 소스

주문은 쿠팡이츠

대표 양고기라구떡볶이 (2~3인분) 17,000원
메뉴 라구우동 10,000원 /라구소스 6,000원

가좌역 3번 출구
모래내시장통

언더그라운드뮤직
라이브공연출장

Rock 음반취입 / 출장녹음

녹음실 타디스

상담 환영

☎ 010)2595-6459
영등포구청역 5번 출구

YOUNG LONG

영상촬영 방송제작 방송송출
younglongkr@gmail.com

격주로 발행하겠다는 애초의 다짐과 다르게 본의 아니게 월간지가 되어버린 멋진인생입니다. 그래도 벌써 3호! 아직도 3호? 어쨌거나 저쨌거나 멋진인생 편집부는 늘 열린 공간으로써 여러분의 대나무 숲이 되겠습니다. 다시 만날 그날까지 우리의 안녕과 행복을 빌겠습니다, 해피 추석!!! -박

가을이 되니 하늘은 저절로 높고 뭉게 구름 풍성한 청명한 나날들 입니다.
물만 먹어도 몸은 살찌지만 마음을 살찌우는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여기 야호 ! 멋진인생 3호가 있습니다. 8쪽 분량 만큼의 멋짐을 마음에 담아 보세요. 내년 추석엔 모두 손에 손잡고 강강수월래 뛸 수 있기빌 바라며 야호!!!!!!!!! -안



투고.제안.제보.광고
park_ain@naver.com

다 읽은 신문지를 돌돌 말아서 신발장 안에 있는 신발 사이에 넣어두면 신문지가 냄새를 흡수해 냄새가 덜 난다더라

비 매 품

구성, 편집 : 야호!멋진인생 편집부
제작, 발행 : 채널1969

채널 1969

이조키의 추천 러브송
권나무 - 마부의노래
나의 허풍 속에 숨겨 진 귀여움을 찾아내는 멋진 그대와 긴 밤의 촛불을 끄겠소